

제주사회복지신문

제35호

2010년 9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 발행인 : 이도한 > 편집인 : 고경윤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제주시 화북1동 1112-1 > 등록번호 : 제주라 01010 > 전화 : 064702-3783 ~ 4 / 팩스 : 064702-3383 > 편집디자인 : 디자인열림

“무장애시설 인증 신청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장애 인증시설(장애친화시설)을 희망하는 건물(시설)주를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노인장애인 복지과(710-2833)에서 ‘무장애시설(건물) 인증’ 신청을 받고 있다.

1998년 4월 11일 이전에 허가된 시설(건물)이나 동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한 경과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한 시설에 대해서는 무장애시설(건물) 인증 평가단의 현지방문과 자체평가를 거쳐 10월 중 선정, 인증패 수여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편의시설 확충으로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사회활동과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2007년부터 ‘무장애시설(건물)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9곳이 인증을 받았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2011년 최저생계비 확정
시설 탐방-사랑의 집
- 사회복지소식 4·5면
공연수익금 저소득층 후원·소식마당
작은알프스음악회·알림마당
- 오피니언 6면
칼럼·서론·기고
- 특집 7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토론회



△제1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사회복지인 한마음축제가 오는 7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모습.

제주 사회복지인 한자리에

7일 학생문화원서 ‘제1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제주 사회복지인의 대화합과 협력의 장인 ‘제1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사회복지인 한마음축제’가 오는 7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우근민 제주지사와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단체 근무자 및 생활(이용)인, 관계공무원, 자원봉사자, 도민 등 1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

어 열린다. 1부는 이주여성 가족 자녀들의 바이올린연주 등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 낭독 등으로 진행된다.

★유공자 명단 2면

2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생활(이용)인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는 사회복지인 한마음축제가 마련된다. 서귀포시니어클럽과 흥익아동복지센터 등 10개팀이 나서 열띤 경연을 벌인다. 대상 1팀에게는 상장과 상금 150만원이, 최우수상과 우수상 각각 1팀에게는 상장 및 상금 70만원, 50

만원이 주어진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로 2010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도 마련됐다.

오는 13일 오후 3시부터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2층 삼다수홀에서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공개심사가 열린다. 이날 심사에서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가 10분 정도 직접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한 뒤 심사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진다. 최우수 프로그램에는 상장 및 상금 50만원이, 우수 프로그램에는 상장 및 상금 30만원이 수여된다. 장려상에는 상장 및 상금 20만원이 주어진다.

사회복지 공무원 제주로

2~4일 워크숍에 1500명 참가

제주시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전국 사회복지 행정연구회(회장 김정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워크숍은 제5회 전국 공공복지 정책비전대회와 함께 열리며, 1500여명이 참가한다.

주요 행사로는 공공복지 우수논문 사례 및 정책제안 발표, ‘일본공적부조연구회’의 연구자료 발표, 문화체험 등이 마련됐다.

특히 워크숍 참가자들의 제주관광·문화탐방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제주시는 속소인 한화리조트에 제주특산물 홍보관을 운영해 제주 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현장에서 특산물을 판매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아카데미 9월 교육 안내

SPSS 활용 통계분석교육

일시: 9월 8일~11월 10일,
매주 수요일 19:00~21:00
내용: SPSS의 구성 및 데이터 입력,
data 편집 및 변수계산,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 등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교육

일시: 9월 14일~9월 17일 10:00~17:00
내용: 경리, 시·군·구 보고 등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원 양성교육

일시: 9월 28일 09:00~13:00, 14:00~18:00
내용: 인증관리 DB시스템 활용 등
장소: 사회복지협의회 삼다수홀(공동)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Happy Jeju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세상!

III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안내

- 2010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 프레젠테이션 공개심사
 - 일시 : 2010년 9월 13일(월) 15:00~17:00
 - 장소 : 사회복지협의회 2층 삼다수홀
- olleh KT 제주배 전도 장애인 IT경진대회
 - 일시 : 2010년 9월 9일(목) 13:00~17:00
 - 장소 : KT제주본부
- 제5회 제주시 사회복지 지역대회
 - 일시 : 2010년 9월 11일(토) 08:30~15:00
 - 장소 : 장생의 숲길(제주시 절물자연휴양림)

내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43만9413원

올해보다 5.6% 인상...제도 도입 이후 2번째 높은 인상을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월 143만9413원(4인 가구 기준)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8월 2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1년도 최저생계비를 5.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두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며, 지난해 인상률(2.75%)의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53만2583원, 2인 가구는 90만6830원, 3인 가구는 117만3121원, 5인 가구는 170만5704원으로, 6인 가구는 197만11995원으로 책정됐다.

현금급여기준은 3.28% 인상된 117만8496원으로 결정됐다. 1인 가구는 43만6044

원, 2인 가구는 74만2453원, 3인 가구는 96만475원, 5인 가구는 139만6518원, 6인 가구는 161만454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복지부는 올해의 경우 3년만의 최저생계비 계측년도로써 생활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했다.

특히 휴대전화기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상황을 반영해 휴대전화 가입비와 통신비 등이 처음으로 최저생계비 품목에 포함됐다.

또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자녀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동의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아동 1인의 수련회비를 추가 반영하고, 아동도서 구입권수를 연간 2권에서 4권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이들의 성장속도에 부합한 피복

비 지원을 위해 내구연수가 6~8년에 이르던 자녀의 점퍼와 바지 등 의류에 대해 내구연수를 2년으로 단축했다.

복지부는 “순조로운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소득층에게까지 그 효과가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정책결정 등 다른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3년마다 돌아오는 계측년도 사이의 비계측년도에는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전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과거 1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했다. 단, 불가 변동폭이 예외적으로 클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에 만전을 기했다.



다문화가정 요리체험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강화 및 다른 나라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문화가정 요리체험행사가 8월 25일 영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요리를 들어 보이며 즐거워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강화 및 다른 나라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문화가정 요리체험행사가 8월 25일 영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요리를 들어 보이며 즐거워하고 있다.

장애아 재활치료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평균소득 150% 이하로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미술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이달부터 완화한다.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이거나 부모 중 1명이 중증장애자인 가정의 경우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4인 가족 월평균소득 586만9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평균소득 100% 이하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만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했었다.

초·중·고 교육법에 의한

초·중·고 재학생은 만 20세 이하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또 종전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치료지원 서비스’와 중복해 지원할 수 없었지만, 장애아동 치료사업이 제공하지 않는 물리·작업치료만 받으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선정기준 완화로 현재 재활치료 지원을 받고 있는 506명 외에 200여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장애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 신청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회복지 유공자명단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제주시청 △정성희(성요셉요양원) △김성훈(한경면사무소) △김정서(제주영락교회) △안재기(도남오거리식당)

▲올해의 사회복지 공무원 △오선경(남원읍사무소) △안진숙(노형동주민센터) △오희경(포선면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 △허재우(제주시립희망원) △김병우(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양연숙(제주시교육청) △임효정(성이시돌요양원) △김희정(제주애덕의집) △송시영(제주영송학교) △양은수(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현대자동차(주) 제주서비스센터 △기아자동차 제주지역본부 △이정숙(탄탄사우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표창 △김정숙(제주정신요양원) △변해순(창암재활원) △이은주(서부종합사회복지관) △김인숙(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고은아(제주요양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표창 △양은희(제주시교육청) △송미경(영평초등학교)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공로상 △고정렬(제주시청)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봉사상 △제주는행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표창 △한혜정(제주정신요양원) △양운석(애월읍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부으뜸(정혜재활원) △강지훈(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하귀초강예린 ‘효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하귀초등학교 강예린(3년) 어린이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이 노인에 대한 공경의식과 효(孝)사상 확산을 위해 마련한 ‘효(孝)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에는 제주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작품 72편이 본선에 올라 강예린 어린이와 중등부 1명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초등부와 중등부, 고등부에서 각 2명이 우수상을 수상



했으며, 초등부와 고등부에서 각 3명이 장려상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 수상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www.jeju.no.in.org)홈페이지에 게시됐으며, 수상작은 노인보호전문기관 해피포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가롤로의집 ‘바다야 놀자’ 진행

가롤로의집은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 7월 22일 이호해수욕장에서 바다체험 ‘바다야 놀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뜨거운 모래사장에서 추위와 파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훌훌 털고, 시원한 바다에 들어가서는 자마다 즐거운 소리를 지르며 더위를 날리는 시간을 가졌다.



혼뜻봉사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줬으며, 자모화에서도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거린사슴, 아노제공동가정서 봉사활동



탐라대학교 거린사슴 봉사동아리는 8월 8일 아노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찾아 기숙사 외벽에 페인트를 칠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생활용품과 후원금을 전달했다.

EM과 함께하는 환경체험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허철수)는 8월 14일 도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응용예술 품아트체험’ 및 ‘EM(유용한 미생물)과 함께하는 환경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품아트체험으로는 뼈에 모양의 메도꽃이를, 환경체험으로는 주변 세균관찰, EM활성액 만들기, EM환경비누 만들기 등을 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 EM 활용을 통해 자원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사회복지협의회 2010년 7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재가결연후원	570,000	570,000
난치병환아후원	80,000	0
자원봉사후원	470,000	470,000
복지사업후원	1,415,000	492,420
푸드마켓후원	2,210,000	561,59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시설탐방

(34)사랑의집



서로 돕고사는 사랑의 한가족

2007년 3월 실비장애인 생활시설로는 첫 문을 연 사랑의 집(원장 김호성). 무더위가 잔뜩 기승을 부리던 8월의 어느 날, 제주시 화북2동에 위치한 '사랑의 집'을 찾았다.



사랑의 집은 제주에서는 유일하게 차상위~저소득 계층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 및 자립, 교육훈련을 통해 그들의 잠재능력을 향상시키고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됐다. 이 곳은 8월 말 현재 지적장애를 가진 38명의 장애인이 함께 모여 생활하고 있다.

사랑의 집은 입소 장애인의 개별 장애정도 및 욕구에 맞는 기초생활훈련서비스, 사회심리재활서비스, 교육심리재활서비스, 의료재활서비스, 자립생활서비스, 스포츠 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외부지원사업으로 올해부터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올레길 탐방과 볼링교실을 중심으로 한 '생활시설 장애인들의 스포츠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육류와 튀김종류를 선호하다 보니 입소 전부터 대부분 비만을 갖고 있고, 스스로 자기관리 필요성을 알지 못해 장애인들 대부분이 과잉행동 및 충동장애 그리고 수면장애를 가짐에 따라 스포츠를 통해 내부의 불안정한 감정 및 충동성을 표출, 심리적 안정과 건강수면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자 기획됐다.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김호성 원장 "부모의 책임감 갖고 봉사"

있는 사회복지사는 "올레길 탐방은 심신건강 유지와 유대감 형성에 긍정적"이라며 "입소장애인의 신체 특성에 맞게 산이 아니라 올레길을 선택해 대상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을 통해 승마재활치료, 원예활동, 수영활동, 언어치료, 사회 적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진영미 사무국장은 "승마 재활치료는 인근 승마장과 연계하여 말과의 교감을 통해 지적장애인들이 취약하기 쉬운 균형감각, 지구력, 유연성, 집중력, 대인관계 등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유익하다"며 강조했다.

실비시설이라는 선입견으로 인해 개원 초 입소자 모집에서부터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에 이르기까지 무

적이나 힘들었다는 진 국장은 "그래도 장애인들이 조금씩 밝게 변화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입소자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입소자 부담금은 전국평균에 비해 낮게 책정해 운영이 힘들다"며 "실비 시설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입소장애인들을 위해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김호성 원장은 "장애인의 마음으로,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이념을 잊지 않고 지적 장애인들을 위해 온 힘을 쏟아 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725-9930~1.
<김홍철 명예기자>

노인복지시설 장수노인 '안식처'

제주시 100세 이상 노인 43% 생활

노인복지시설이 장수노인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8월 29일 현재 제주시 지역 양로원과 요양원 등에서 생활하는 100세 이상 노인은 26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제주시 관내 100세 이상 노인 60명의 43%에 이르는 것이다.

또 95~99세 노인 85명, 90~94세 노인도 187명 등 90세 이상 노인도 272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수노인이 많은 이유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이 충원돼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안정적

인 케어가 이뤄져 건강이 호전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쾌적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치매예방 프로그램과 청결한 위생관리, 물리치료 등이 꾸준히 제공되는 점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가 전국에서 100세 이상 장수노인 비율이 높다는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노인복지시설의 현대화와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지역에는 양로원 2곳과 요양원 29곳이 있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 145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도자원봉사센터-한전KPS(주)제주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신상순)와 한전KPS(주)제주사업소(소장 강수민)가 8월 20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5층 중회의실에서 두 기관의 협력사업과 자원봉사를 연계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전기 및 통신, 자원봉사 분야의 전문 강사



교류 등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CJ도너스캠프,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지원

CJ도너스캠프가 제일지역아동센터(원장 박영식) 아동들에게 여름방학 기간 동안 '올레길 여섯 코스 체험'과 '요리 교실' 특별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소 나들이 기회가 없고 다양한 문화 체험이 필요한 지역 아동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주고자 CJ도너스캠프와 연계, 기획한 것으로 아이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CJ도너스캠프는 도움이 필



요한 전국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기부 사이트로 2005년 7월에 설립,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혜정원아가의집, 태고원서 작은음악회



혜정원 아가의집(원장 고용성)은 8월 16일 태고원(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 작은 음악회를 실시했다.

작은 음악회를 통해 성인 중증 지적장애인들이 음악치료를 배운 노래와 악기 연주를 공연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기타로 꿈을 이루고 사랑을 전한다

공연수익금 모아 한부모 가정 자녀후원



초록이의 신나는 1박 2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운호)은 오현고등학교 멘토와 함께하는 희망의 날개달기 멘토링 '초록이의 신나는 1박 2일'을 실시했다.

이번 여름캠프는 워터월드에서 멘토와 멘티가 물놀이를 하며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물놀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서 서로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표현하지 못한 속마음을 전달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 것 같다고 멘토와 멘티는 입을 모았다.

희망의 날개달기 멘토링은 결손빈곤가정내 아동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를 1:1로 연결해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단절을 방지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향기 나는 노래를 하자 / 비눗방울로 집을 짓자 / 숫자로 꿈꾸자 꿈을 꾸자 /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상상하는 대로...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 (산울림의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 가사의 일부)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살 수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꿈꿀 겨를도 없이 각박하게 돌아가는 요즘 시대에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한 꿈을 실천으로 옮기는 이들이 있다. 바로 제주도문화예술동호회 ‘기오타’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의 약칭)이다.

처음엔 음악을 하고 싶은 이들이 연습실을 구하다가 만든 공간이었지만 청중과 호흡하는 소극장으로 운영하지는 의견이 모아져 ‘기오타’라는 명칭이 생기게 되고 그 후로 하나 둘 회원들이 모여들어 지금은 초



등학교생부터 60대까지 320여명의 회원들이 있다.

서귀포시 1호광장 주변에 위치한 이 곳은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어쿠스틱기타, 일렉기타, 드럼 등을 정기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매월 정기공연을 열어 매회 60명 내외의 관객이 방문하고 있다. 지난 5월 첫 돌맞이 공연에 90여명의 관객이 찾았고, 최근에는 제주시 중앙로에 기오타 2호점을 열어 오픈공연을 여는 등 지금까지 10회에 달하는 정기공연을 가졌다.

제주도 지역의 공연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이들은 공연입장료 수익금을 모아서 제주도내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의미 있는 일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강경환 대표는 “얼마 되지 않는 수익금이지만 조금이라도 의미있는 일에 쓰인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더 크고 값진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작은 일이 희망의 꽃씨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면 더없이 보람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처럼 도내 많은 음악인들이 기오타의 뜻에 동참, 출연료를 받지 않고 함께 무대에 오르

고 있다.

동호회 사이트=http://cafe.daum.net/guitarblke.

〈김용성 명예기자〉



누리기자단 숲 체험활동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는 8월 14일 제주시 절물자연휴양림에서 ‘누리기자단’ 자원봉사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숲 체험’ 활동을 가졌다.

숲 체험 활동은 그 동안 위탁아동을 위해 힘써온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아동을 돕기 위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구성된 누리기자단은 가정위탁보호아동 등 지역의 어려운 아동을 위한 가정방문과 멘토, 학습도우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자원봉사 모임이다.



일배움터, 중소기업센터 입점

일배움터가 지난 7월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지원센터 제주특산물전시판매장에 입점, 제주를 대표하는 특산물 생산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배움터는 2008년 전국꽃배달사업을 시작으로 우리마트, 도남집과 신제주점에 화훼류 및 무말랭이, 건조고사리를 납품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아름다운가게,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전국매장에도 친환경무말랭이를 공급하면서 사업반경을 전국으로 넓히고 있다.



8월 식품 기탁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

다수 2ℓ

1800개, 감귤주

스 150ml 1000개 ▲(주)금강축

산유통=육류 360kg ▲서문식

품=두부 432모, 콩나물 220

봉 ▲김치원=김치 75kg ▲중

앙유통=채소류 300kg ▲싱싱

부식=김치 40kg ▲나누리라이

온스클럽=쌀 100kg, 후원금

75만원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주식·반찬류 150kg ▲일

배움터=고추 30kg

소/식/마/당

다문화가정 가족문화체험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송옥희)은 7월 29일 2010 특별한 머느리 제주도민 거둬나기 사업의 일환으로 서귀포시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30여명을 대상으로 서귀포자연휴양림에서 가족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여름철 야외활동에 좋은 장소인 서귀포자연휴양림에서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린사랑나눔회, 장애인 바다체험



그린사랑나눔회(회장 이영길)는 7월 20일 제주장애인요양원의 가족들과 함께 이호해수욕장에서 바다체험을 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그린사랑나눔회는 여름을 맞아 바다나들이를 진행, 중증장애인들이 보트에 승선해 직접 노를 저어 배도 움직여 보는 등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순복음복지관 독서캠프 개최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8월 17일과 18일 양일간 금능청소년수련관에서 복지관 이용 초등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제1회 독서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독서캠프에서는 독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이 진행됐으며, 참여 아동들의 협동심과 대인관계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줬다.

에사모, 에너지 절감 봉사활동



에너지를 사랑하는 모임(회장 김경수) 회원들은 7월 4일 사랑의집(원장 김호성)을 찾아 에너지 절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에너지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은 (주)경림산업이 후원한 단열제로 건물 단열작업을 시공해 에너지 10% 절감과 절로 인한 불쾌한 환경을 개선했다.

송죽원 여름바다 캠프 실시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8월 4일 신흥리 백사장에서 장애인과 보호자, 지도교사 등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레크리에이션과 신나는 물놀이 등 여름바다 캠프를 실시했다.

송죽원은 여름바다 캠프를 통해 시원하고 푸른 바다로 나가 자연의 정취를 만끽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무료한 일상에서 탈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특전사 장병들과 윗세오름 등반



사회복지법인 유진재활센터 주·단기보호시설(원장 최은미)은 8월 17일 특전사 장병들과 한라산 윗세오름을 등반했다.

평소 오른 정상에 서보지 못한 장애인 친구들도 특전사 장병들의 도움으로 정상에 올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됐다.

천사들이 들려주는 알프스의 메아리

작은 알프스 음악회 열려

천사들의 맑고 경쾌한 요들에 흠뻑 빠진 도민들이 알프스 산맥을 연상하며 한여름의 무더위를 잊었다.

8월 14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외환은행 나눔재단 지원으로 천사의집(시설장 김성숙) '작은 알프스' 요들단 천사들이 요들송과 스위스 민속춤, 그리고 악기연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듣는 이로 하여금 절로 흥이 돋고 기분 좋아지게 하는 요들과 천사의집 아동들이 인연을 맺은 것은 2003년, 아동들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고민하던 중 '요들'을 찾았으나 제주에는 전문적으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 감습에 어려움도 많았다.

서울을 오가는 선생님의 노력으로 인천YMCA알핀로제어린이요들단(이하 알로핀제)의 단장이자 '김홍철과 친구들'



멤버인 방윤식 선생과 인연이 닿아 사이버강습을 시작으로 '작은 알프스' 단의 활동이 시작됐다. 2006년부터는 방윤식 선생이 매년 여름캠프에 '작은 알프스'를 찾아 요들발성과 악기지도를 하고 있다.

이번 여름캠프에도 방윤식 선생과 3명의 전문강사에게 파트별, 수준별로 나누어 교육을 받았으며 8월 13일에는 서귀포 새연교에서 제주도민과 관

공객들에게 스위스 민속악기 연주와 요들송을 선사해 박수 갈채를 받았다.

7살 막내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20명으로 구성된 '작은 알프스'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예술제에 참가해 금상을 받았으며, 여러 행사에 초청돼 맑고 고운 화음으로 경쾌한 요들송을 전하며 밝게 성장하고 있다.

〈조순옥 명예기자〉

"오카리나 배우며 행복한 여름방학 보냈어요"

이여도지활센터등여름방학체험교실 운영

제주이여도지역자활센터와 제주시 한경면 조수1리 마을문고가 여름방학을 맞아 농촌지역 아이들을 위해 '조수1리 여름방학 체험교실'을 운영했다.

제주이여도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효철)가 조수1리 마을문고(회장 김대유)와 함께 마련한 이번 체험교실은 자활근로사업단인 방과후 공부방사업단과 생태관광사업단, (사)꽃지왓사람들이 자원봉사에 나서 지리적·경제적 여건으로 문화체험 활동기회가 부족한 농촌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거리와 재능을 익힐 기회를 선사했다.

8월 3일부터 20일까지 매주 화~금요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30분간 열린 체험교실은 오카리나 연주, 우리 마을 생태지도 만들기, 자연물공예, 재활용품 만들기, 북아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추억거리를 남겼으며, 만든 작품들은 방학숙제로도 활용해 교육효과도 높였다.

특히 이번 체험교실동안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청년지역행동' 국제캠프에 참가한 스페인, 필리핀, 베트남,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에서 온 대학생 16명이 '우리 마을 생태지도 만들기'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이들과 함께 해 색다른 경험과 추억을 안겨주기도 했다.

수료식에서는 작품전시회 및 오카리나 연주 발표회를 열고 배운 습지를 뽐냈으며 17명 아이들에게 수료증 전달, 열심히 참여한 아이들에게는 상장과 상품으로 격려했다.

체험교실에 참가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체험에 행복한 여름방학을 보냈다"며 즐거워했다.

이번 체험교실을 계기로 이여도지역자활센터와 조수1리는 자칫 소외되기 쉬운 농어촌 지역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문화사업을 비롯해 마을복지와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와 교육,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조개·게잡이 생태체험활동

한빛지역아동센터(시설장 주종훈)는 8월 17일 애월읍 괄지 해변에서 조개·게잡이 생태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월 시작한 미술활동과 대종탕 이용하기 여름방학 프로그램의 하나로, 한부모, 조손, 저소득 맞벌

이가정 아동의 미술활동을 통한 심리치료 효과 함양과 정결한 위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한빛지역아동센터는 지난 4월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지원으로 오후 10시까지 야간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 15명을

알/림/마/당

■ 행복한 장애인 가정만들어요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은 복지관 통합부모회와 공동으로 관내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행복한 장애인 가정 만들기 가족공감 축제' 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역량강화와 친목도모를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12월까지 ▲부모교육아카데미 ▲우리엄마는 여왕님 ▲우리아빠 짱이야 ▲아이공감축제 ▲가족사명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서귀포시 양성평등지원과와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해 이뤄진다.

문의=732-2352~4.

■ 11일 제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2010 청소년대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허철수)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참여위원회(위원장 박시몬)는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제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학기중 방학제도 도입', '선거권에 대한 연령제한 낮추기'를 주제로 2010 청소년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참여위원회는 2006년에 조직돼 전국청소년참여대회 및 청소년특별회의출범식, 청소년정책제안 및 정책제안에 따른 의제선정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참여기구이다.

너와 내가 함께 만드는 호호(好好)학교 실시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서귀포시교육청의 2010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제주 산남지역 취약계층아동 역량강화 종합지원 프로젝트 '너와 내가 함께 만드는 호호(好好)학교' 사업을 서귀초등학교에서 7월부터 두 달에 걸쳐 실시했다.

이 사업은 산남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프로그램, 자아발견 프로그램, 사회적 향상 프로그램,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자존감·공동체 의식 향상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인형극을 통한 성교육 활동에 아동들이 직접 참여해 인형극단 활동을 진행, 참여 아



동들에게 자존감 및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산남지역 취약계층 아동의 낮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을 높이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며,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아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진행했다.

정혜재활원·광주사회복무교육센터 협약 체결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은 7월 29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지교육본부 산하 광주사회복무교육센터(센터장 문창인)와 사회복지부무원 직무교육 실습협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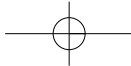
앞으로 사회복지교육센터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한 이론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정혜재활원은 습득한 이론을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실습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지금까지 산남지역에는 사회복지부무원들이 실습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서귀포시에 근무하는 사회복지부무원들은 제



주시에까지 가서 실습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정혜재활원은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유능한 사회복지부무원 양성에 힘쓸 것이며 다양한 실습프로그램 개발과 직무응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칼럼

따뜻한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보편적 설계)



고 현 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정책전문위원

중앙로 지하상가 입구에는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호출버튼을 누르면 경비원이 와서 에스컬레이터를 가동시킨다. 안전을 고려한 속도 때문에 천천히 내려가는데 족히 3~4분은 소요된다. 그간 울려대는 ‘삐삐삐’하는 경고음과, 생경하여 잠시 살펴보는 시민들의 눈사위가 계속되는 동안 탑승한 장애인의 마음은 어떨까.

장애인-비장애인 가른 편의시설

2001년 서울의 오이도와 발산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추락하여 사상한 적이 있었다. 이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장애인단체들이 강하게 투쟁하면서 서울의 다수 지하철역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다. 하지만 장애인용 엘리

베이터인지라 이 엘리베이터를 몰래 타는 비장애인(시민)은 압제가 된다.

이렇듯 현재의 사회적 편의시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놓고 있다. 애초부터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장애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이중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고, 장애인과 시민간 계층갈등을 야기시키기보다 사회통합적 입장에서라도 바람직한 정책이었을 것이다.

제주도에는 11대의 저상버스가 있다. 장애인의 탑승편의를 제공하는 시민교통수단인데, 제주도는 이 저상버스가 장애인만을 위한 복지서비스로 이해할 뿐이지 도시의 보편적 교통체계에 대한 이해는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저상버스 확대 도입은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혹은 사회 환경간 물리적 장벽을 애초부터 두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다. 의식주에서부터 넓게는 교통체계를 비롯한 도시디자인까지 장벽을 두지 않은 설계를 하면 갈등을 줄이고 장벽제거를 위한 사회적 비용 역시 절약된다는 합리적 사고를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모두 이용 가능한 저상버스와 엘리베이터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 유형 간에도 합리적 가치로 문제를 해결한다. 횡단보도에 턱이 있으면 시각장애인에게 턱은 정지하라는 인식수단이 되어 안전수단이 되지만 휠체어장애인에게 보도 턱은 이동에 방해물이 되어 장애 유형간 갈등이 될 수 있다.

사회적 비용 줄이는 사고필요

한데 유니버설 디자인은 서로 인내할 수 있는 3~4cm의 낮은 턱을 제안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스틱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렇듯 사회구성원 모두의 편안함 이용과 사고예방을 추구하는 디자인이다.

제주시는 삼화지구, 아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에 있다. 새로 조성되는 도시계획을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설계한다면, 잘못된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부수고 다시 설계하고 돈이 드는 낭비 요인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이해보다는 관련 법적응만 이해하는 것 같다. 법적응을 잘하겠다는데 필자가 더 무엇을 요구하겠는가. 장애인당사자와 단체의 관심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론

지구를 떠나거라?

이른 아침부터 무더위의 서막을 알리는 매미가 목청 높여 울어댄다. 벌써 땀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와 이내 불 먹은 종이처럼 셔츠가 살갗에 짙 달라붙는다. 손수건을 적셔 목에 두르고 선풍기를 얼굴 가까이에 당기고 얼음 가득 넣은 물을 마시자 턱까지 차올랐던 숨이 내 쉬어진다.



고 보 선

제주산업정보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지구 곳곳에서는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은 지 오래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기후와 절기의 변화로 인한 재해,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변화 등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으랴. 우리가 저지른 환경파괴 행위들은 여러 재앙을 낳고 있으며, 그 다음의 재앙을 알리는 신호탄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다. 환경변화에 대한 위협성을 여전히 무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구는 지쳐가고 있다. 자연을 삶의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 인간들에게 자연이 테러리스트로 돌변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자연 공존점 찾는 대안 논의돼야

생태계환경학자, 지질학자 등은 오래 전부터 지구의 경고를 꾸준히 알려왔다. 얼마 전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기적이고 공격적인 인간이 지구의 유한한 자원을 마구 사용하여 인류는 곧 멸망의 위기에 닥쳐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지구라는 한 행성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여러 행성에 분산되어야 인류의 멸망을 막을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대로의 상황이라면 지구는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멸망한 지구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로봇 ‘월E’라는 영화에서처럼 인류가 지구를 떠나야 할 상황까지 닥치게 된다는 것인가? 인류가 대안을 찾아내어 다른 행성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삶의 터전의 소중함을 잊는다면 새로운 행성도 임시방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 4인 가족에서 한 달간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724kg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매년 소나무를 3128그루를 심어야 상쇄되는 양이다.

국가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1/3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생활 속 실천을 통한 녹색성장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지난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이후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출범시키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 또한 올해 2월 ‘녹색관광의 날’을 선포하고 저탄소 녹색환경을 추구하는 관광을 천명하고 있다. 그 시작으로 제주올레의 주변 생태, 문화, 역사자원 등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여 생태관광 자원화하는 방침을 두고 있으며, 가파도 탄소중립도시개발은 풍력과 태양력, 파력 등 가파도의 청정 자연환경자원을 활용하여 전기 자동차 도입 등이 계획되고 있다.

녹색성장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익을 초월한 국가 간 협조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인간과 자연의 상호호혜적 공존점을 찾는 실천적 대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것이 인류가 우주로 퇴출되기 전에 서둘러 해야 할 노력들이다.

기고

복지 체감도가 낮은 이유



허 철 훈

제주주 주민생활지원과통합조사관리담당

사회복지영역은 저소득층 위주에서 보편적 복지로 다양하게 더 넓게 펼쳐 나가고 있다.

도민들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요구는 매우 급속하게 변화하며 집적인 기대치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도정에 기대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기대도 아마 그러할 것이다. 비효율적인 복지정책으로는 도민의 믿음을 얻을 수 없고, 일시적 복지시책으로는 진정으로 소외된 계층의 한숨아픈 눈물을 닦아줄 수 없다.

사회복지 분야의 희망이 사회 복지전달체계의 양 바퀴인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균형과 발전을 위해서 상호 개방적인 의견교

환과 수렴과정이 선행이 이루어질 때 도민 개개인이 꿈꾸는 희망과 다르지 않다.

오랫동안 일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구축해 온 민간전달체계와 의사소통을 위한 공공분야의 인력의 전문성, 관리자 및 인력지원 등도 병행돼야 한다. 개편 때마다 조직을 신설하고 뒤흔었지만, 인력 부분은 추가 증원 없이 효율성을 우선한 인력 전환 및 재배치를 했다.

전달체계 개편 효과성은 한눈에 들어오게 구매상품을 정리 정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계적 상품이 아닌 사회복지정책을 구현서비스로 전환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전문적 중간관리자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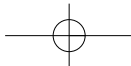
복지예산이 매년 15~20%씩 증가하는데도 일부에서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복지 전달체계 문제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는 경쟁이라도 하듯 복지정책을 쏟아낸다. 하지만 복지행정의 최일선으로 내려가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정책이 원활히 집행되지 않는다.

이런 현실을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갈때기 현상’이라고 표현한다. 복지정책의 종류와 예산은 늘어나는데 이를 집행할 공무원은 늘지 않으니 업무가 집중되고 수요자들에게 혜택이 전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은 복지 수요자의 낮은 복지 체감도가 전제이면서도 현재까지 결과이며 꾸준히 증가한 복지영역의 실적 확대와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이용자(수요자)의 만족도 없는 다시 말해 효과가 없는 사회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성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방정부나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의 종류가 120여 종류가 넘어 이를 집행하는 기준이나 지원 방식이 다르고 지침도 복잡하다.

또 현재의 시스템은 도민 스스로 서비스를 찾아 신청해야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도민이 한자리에서 모든 서비스를 안내 받도록 시스템이 이루어질 때 복지 체감도는 분명 올라갈 것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정책토론회

“적격성 확인 위한 인증제 도입 필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점검하며,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확보와 궁극적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과제와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8월 2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본지는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의 기조발제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8월 2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의 주최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현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제공=함께걸음>

나운환 교수는 “직업재활시설이 경쟁 고용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유일한 고용의 대안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궁극적으로 경쟁이나 보호고용으로 전이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직업재활시설 수의 확대와 마케팅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 교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시행중인 유형재편이 바람직하게 정립되지 않는다면 직업재활시설은 더욱 혼란만 가중될 것이고 수의 확대와 마케팅 문제도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며 ▲유형구분에 대한 관계자들의 인지 부족 ▲유형에 맞는 적격성 확인을 위한 인증제 미도입 ▲유형재편에 따른 지원 미흡 ▲직업재활시설과 근로장애인의 근로기준법 적용문제에 대한 논의 부족 등을 유형재편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꼽았다.

나 교수는 “일부 직업재활시설 원장이나 종사자들은 유형개편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의 보호고용 기회가 오히려 제한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이라며 “이번 유형개편은 직업재활시설이 또 다른 생활시설이나 여가프로그램이 아닌 직업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용기회를 확대하자는 측면이 강하다”고 했다.

또 “직업재활은 아무리 장애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기조발제

직업에 초점 맞춘 유형개편으로 고용기회 확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조기 정착 관건

가 중박, 중증이라 할지라도 세분화된 직무분석 조정이 이뤄지고 필요한 훈련이 제공되면 근로자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 교수는 특히 “장애 정도와 특성, 직무요건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게 적용돼야 하는 직업능력개발이나 고용에 대한 지원방안도 달라야 한다”며 “직업재활시설신고에 따른 요건과 시설유형에 맞는 적격성 확인을 위해 반드시 인증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증제 시행을 위한 방안으로 ▲시설유형별 5개 이내 시설에 대해 인증시험사업 실시 ▲직업재활시설의 특성을 이해하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2자 인증 ▲인증결정 방법 등을 제안했다. 인증결정 방법은 관련 법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는 ‘3년 인증’, 관련 기준에 부합함이 있지만 부족함을 수정하거나 수정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는 역량과 노력을 가진 시설에 1년의 준비기간을 주는 ‘조건부 인증’, 법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필수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몇몇 기준 영역에서 중요한 문제를 보여 장애인들에게 시설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 불가’ 등으로 구분했다.

나 교수는 “시설유형개편은 근본적으로 운영기준과 인원배치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설 지원기준의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종래의 시설유형이 두가지 형태로 축소되는 만큼 전체적인 예산운영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작업활동시설의 경우 최소한의 생산성을 담보하는 기능재편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예산배정에 있어 적극적인 우대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유형재편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설유형개편에 따른 예산확보가 전제되고 적절한 투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확보를 우선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예산변형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제도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실제적인 유형재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자치단체별 로드맵 제시와 재신고 기간 연장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직업재활시설 유형재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후 3년 이내에 재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신고는 마지막 해인 2010년에 집중돼 있고 이것도 이미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유형재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예산확보와 지원이 전제된 지자체별 유형재편 기간에 대한 로드맵과 필요한 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와 시한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 교수는 또 직업재활시설 유형재편의 성공요인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들었다.

그는 “시설유형재편이 시설의 운영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는 것은 분명 한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시설운영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운영비의 현실적 지원이나 마케팅에 있어 적극적 우대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며 “운영비를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정부 예산구조나 장애인들의 예산 요구방식에 비춰볼 때 무리가 있으므로 마케팅에 있어 적극적 우대조치인 우선구매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이 직업재활시설 유형재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케팅의 본질적인 문제인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구현이 중요하다”며 “적용대상을 보다 분명하게 하고 업무수행기관을 직업재활시설협회로 지정하며, 단체수계약 제도의 도입이나 우선구매제도 수행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을 실효성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나 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황호평 보건복지부 사무관, 이영민 마라작업활동시설 원장, 양은심 길직업재활센터 원장, 유해숙 안산1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진행했다.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Happy Jeju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세상!

제1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2010 사회복지인 한마음 축제

일시 : 2010년 9월 7일(화) 11:00~16:00

장소 :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주최 | 주관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www.jejubokji.net

참여단체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제주지부, 제주여성상담소인권사설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학과교수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복지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활센터협의회,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제주지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제주지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제주지부 (가나다 순)